

황영성 초대전...지역작가들에 문여는 문화전당



황영성 화백



'운동주의 서시'

22일~8월20일 '황영성:우리 모든 것들의 이야기'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협업을 강화하며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무대에 올린 연극 '맥베스411'는 출연진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전국 연극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달 초 광주시와 함께 주최한 'ACC광주프린지인터내셔널'은 3일간 10만명이 방문해 축제를 즐겼다.

또 지난해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전당에서 열리던 이어 내년 광주비엔날레도 전당 개최를 앞두고 있는 등 미술계에도 손잡고 있다.

이번에는 광주 지역 미술작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문화창조원 복합6관을 소폭 리모델링해 전시공간을 확보, 정기적으로 지역 원로·중견작가 초대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첫번째 초대작가는 지역미술문화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황영성 화백이다. 그동안 설치, 영상 작품이 문화전당에서 전시를 한 적은 있지만 평면회화 작가 초대는 처음이다.

문화전당이 오는 22일부터 8월20일까지 '황영성 : 우리 모든 것들의 이야기'(HWANG YOUNG-SUNG : The story about all of us)를 연다. 전시 개막식 22일 오후 4시 복합6관 로비.

황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작업한 유화 40여점과 드로잉 30여점을 선보인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황 화백은 남도 향토성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표현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작품에 담고 있다. 개인의 삶과 경험에 기반을 둔 '가족'을 작업 주제로 삼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라는 자연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 주변 풍경과 가족, 이웃 모습을 담은 작품부터 자연과 우주로 확대된 최근 작품들까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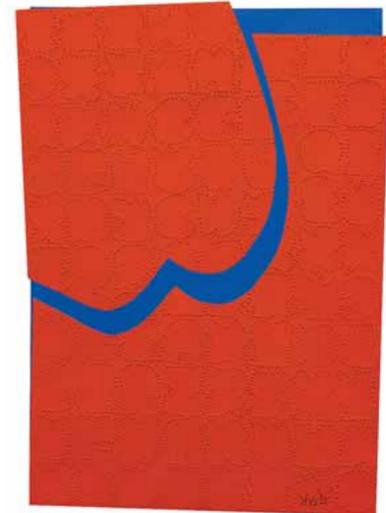
황 화백은 가장 의미있는 작품으로 1970년대 그린 '도

문화창조원 복합6관 전시공간 확보

지역 원로·중견작가 정기 초대전

유화 40여점·드로잉 30여점 전시

황 화백 동구 충장축제위원장 위촉도



'바람 이야기'

방'을 꼽았다. 흔히 볼 수 있는 시골 초기집을 화폭에 옮긴 이 작품은 돌계단, 뒷마루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한다. 전시에 함께 출품한 최근작 '가족이야기'에 등장하는 초기집의 모델이 된 작품이다.

'가족이야기'는 황 화백 작업 주제를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캔버스를 네모칸으로 나누고 각 칸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은 미니버섯식 구성을 보여준다. 노랑, 빨강, 파랑 등 밝은 채색으로 부모, 아이, 집, 향소 등을 채워넣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건넨다.

2000년대 들어서며 작업한 단색화 '바람 이야기'도 눈에 띈다. 유화 또는 드로잉으로 다양하게 그린 이 작품은 바람 움직임과 기운을 단순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또 글자 추상으로 시를 그린 신작도 공개한다. 지난 전시에서 한자 한자 작품을 보여준 데 이어 이번에는 '운동주의 서시'를 통해 글이 가진 매력을 전달한다.

그밖에 자유분방한 심성이 엮여있는 '계절 이야기', 녹색과 회색을 사용한 '마을 이야기' 등 황 화백 예술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황 화백은 "문화전당에서 전시를 하지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다른 작가들도 전시 욕심이 나게끔 공간 구성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문화전당이 세계적으로 관심받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시민들의 사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전시가 첫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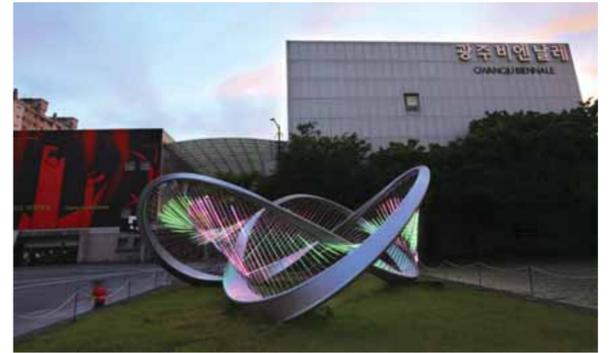
최근 동구 충장축제위원장에 위촉된 황 화백은 동구와 문화전당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기존보다는 새로운 모습의 충장축제를 보여줄 생각이다"며 "큰 틀 안에서 동구와 문화전당이 잘 협력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가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시는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수요일·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시 개막일(22일)에는 문화창조원 모든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1899-55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폴리 사진공모전 김정현씨 최우수상

전국서 35점 응모...입상작 6점 선정



최우수상 김정현 작 '해질녘 인피니트 엘리먼트'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개최한 제1회 광주폴리 사진공모전 최우수상(상금 50만원)에 김정현씨의 '해질녘 인피니트 엘리먼트'가 이름을 올렸다.

'광주폴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35점이 응모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입상작 6점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해질녘 인피니트 엘리먼트' 선정 배경에 대해 폴리 조형물과 빛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비엔날레 광장에 자리한 '인피니트 엘리먼트'는 국형걸서·신수경씨의 작품으로, 피비우스 띠를 형상화한 철제 구조물의 조형미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된 작품이다. 우수상(상금 25만원)에는 광주폴리 II '광주전 독서실'을 배경으로 한 김현경씨의 '자연과 하나 된 폴리'가 선정됐다.

장려상(각 10만원)은 송재영씨의 '인생, 페이지를 넘기다', 박지정씨의 '폴리와 시간의 흐름'이 수상했다. 입선작(각 5만원 상품권)으로는 박해인씨의 '오월의 끝자락', 변찬민씨의 '밤, 열린공간'이 뽑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광주비엔날레 사무동 3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재단은 입선작들을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062-608-426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애섭과 제자들 '한과·음청의 멋과 맛' 전

22일까지 남도음식박물관

이애섭(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회 전통의례음식장) 음식명인과 제자들이 맛깔난 전시를 연다. 22일까지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한과, 음청의 멋과 맛'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이애섭 명인과 김현진, 이미자, 조유순, 윤경, 정금례, 나민안, 김인순 등 제자 22명이 참여해 한과, 음청류 40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고운에서도 잘 부패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실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과를 만날 수 있다. 엿강정류, 유과류, 건정과류, 속실과, 과편, 유밀과, 다식 등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한국식 디저트다. 재료 색깔을 활용해 꽃 등 화려하게 장식한 점이 특징이다.

또 전통 음료인 음청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음은 일반적인 음료수를 말하고, 청은 알갱이 지민 과일을 꿀이나 설탕에 재어뒀다가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가르



킨다. 그밖에 보자기 포장 공예 등도 전시된다.

이 명인은 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 전남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전통음식, 패백을 교육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례음식과 상차림'이 있다. 문의 062-410-66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